

국 어  
해설위원 :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연도\유형	문법/규범	비문학/ 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9년	11(↓1)	4(↑2)	3(↓1)	2
2018년	12	2	4	2

2019 서울시 7급 시험은 2018년 서울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비문학/독해가 2문제가 늘어난 대신 문법/구법과 문학에서 각각 1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강조되고 있는 비문학/독해 영역의 비중이 서울시 시험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법/구법이 11문제가 출제되어 여전히 서울시 고유의 지식형 문제 중심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한자는 어휘 문제 없이 한자와 한자 성어 문제만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평이한 한자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도 한자 문제는 2문제가 출제된 점을 볼 때, 앞으로도 한자 암기를 위해 지금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 7급 시험에서는 기존 기술 포인트를 변형한 시제 선이말 어미, 어휘의 의미 변화, 훈민정음과 같은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된 반면 평소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학과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소 기술문제를 중심으로 기술변형 문제풀이를 꾸준히 한 수험생들의 경우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선은 80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구법의 경우에는 편식하지 않고 전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서울시 7급 수준의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을 알아맞히는 것을 넘어 그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나누어 매일 2~3문제씩 꾸준히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도 강의를 통해 익히도록 합니다.
- 문학의 경우 '현대시-현대산문-고전시가-고전산문'과 같은 순서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해당 작품에 대한 내용 분석을 교재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접해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문씩(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어휘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2020년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기미진 올림

##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http://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http://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http://youtu.be/0ORfvstCC6g)

1.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훑다[할따]                      ② 뵈게[밥:께]  
③ 엮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된소리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표준 발음법」 제10항 접받침 ‘ㄹ’, ‘ㄴ’, ‘ㄷ’, ‘ㄹ’,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ㄴ]으로 발음한다와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표준 발음입니다.
- ② [O] 「표준 발음법」 제10항 다만 규정에 따라 ‘ㄹ’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고,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표준 발음입니다.
- ③ [O]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규정에 따라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ㄴ, ㄴ, ㅈ, ㅊ, ㅌ), ㅅ(ㅈ, ㅊ, ㅌ,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표준 발음입니다.
- ④ [X]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규정에 따라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ㄴ, ㄴ, ㅈ, ㅊ, ㅌ), ㅅ(ㅈ, ㅊ, ㅌ,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어간 ‘ㅁ-’은 어미 ‘-고’ 앞에서 ‘ㅁ고[말고]’로 발음해야 합니다.

2.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쓰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장의 구성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관형절은 관형절과 피수식어와의 관계에 따라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뉩니다.

- ① [X] 관형절의 피수식어 ‘음식’이 관형절 ‘영수가 (음식을) 만들다’의 생략된 성분(목적어)이므로 ‘관계 관형절’입니다.
- ② [X] 관형절의 피수식어 ‘질문’이 관형절 ‘영수가 (질문을) 하다’의 생략된 성분(목적어)이므로 ‘관계 관형절’입니다.
- ③ [O] 관형절 ‘영수가 애쓰다’는 생략된 성분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며, 관형절 ‘영수가 애쓰다’와 피수식어 ‘사실’은 의미상 동격 관계이므로 ‘동격 관형절’입니다.
- ④ [X] 관형절의 피수식어 ‘소문’이 관형절 ‘영수가 (소문을) 듣다’의 생략된 성분(목적어)이므로 ‘관계 관형절’입니다.

## - 기특 플러스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관형절은 관형절과 피수식어와의 관계에 따라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뉜다.

관계 관형절	<p>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속의 일정한 성분(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될 수 있는 관형절을 말한다.</p> <p>예 • <u>길 가는</u> 친구를 붙잡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고기를 주식으로 먹는</u> 사람들은 건강이 썩 좋지 않다.</li> <li>• 순이는 어제 <u>고향에 살고 있는</u>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li> </ul>
동격 관형절	<p>관형절 자체가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속의 일정한 성분이 될 수 없는 관형절이다.</p> <p>예 • <u>그 사람이</u>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나만 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낙엽이</u> 지는 광경이 슬프구나.</li> <li>• 그는 <u>우리가</u>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li> </ul>

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제 표현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이 문장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습니다.  
 ② [X] 이 문장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습니다.  
 ③ [O] 이 문장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습니다.  
 ④ [X] 이 문장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습니다.

- 기특 플러스 어미 ‘-겠-’의 용법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예 •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식당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예 • 나는 시인이 되겠다.  
 •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예 •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예 •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 내가 말해도 되겠니?  
 •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5」 해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예 • 별사람을 다 보겠다.

4.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외래어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옐로카드(yellow card)[O]: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8항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습니다.  
 스태프(staff)[O]: 불령 따위의 운동 경기나 댄스에서, 동작의 단위가 되는 발과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스텝(step)’과 구별해야 합니다.  
 케이크(cake)[O]: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항 3의 “무성 파열음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케이크’는 옳은 표기이며 ‘케이’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X] 가디건(cardigan)[X] → 카디건[O]: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뷔페(buffet)[O]: ‘부페’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캐러멜(caramel)[O]: ‘카라멜’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 ③ [X] 냅킨(napkin)[O]: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항 1의 ‘짧은 모음 다음의 무성 파열음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옳은 표기입니다.  
 점퍼(jumper)[O]: ‘잡바’도 옳은 표기입니다.  
 초콜렛(chocolate)[X] → 초콜릿[O]  
 ④ [X] 팡파레(fanfare)[X] → 팡파르[O]  
 크로켓(croquette)[O]: 서양 요리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마사지(massage)[O]: ‘맛사지’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 순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 푼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① ㉠      ② ㉡      ③ ㉢      ④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어의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유치환의 시 <깃발>은 1930년대의 작품으로 반드시 주제를 알아두어야 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깃발’은 깃대에 매달려 바다로 향하지 못하고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깃발’은 이상향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그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좌절과 한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X]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의 ‘㉠ 아우성’은 필릭이는 ‘깃발’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② [X]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순수건’의 ‘㉡ 순수건’은 ‘푸른 해원(이상향)’을 향하여 필릭이는 ‘깃발’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③ [O] ‘㉢ 푼대’는 깃발이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깃발’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해 필릭입니다. 이는 이상향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깃발’은 ‘이념의 푼대’에 매여있기에 영원히 ‘푸른 해원’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는 좌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④ [X]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에서 ‘㉣ 마음’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깃발’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 기특 플러스 작품 분석

유치환, <깃발>

연대: 1930년대

주제: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그 비애

성격: 상징적, 낭만적, 역동적

특징: 도달할 길 없는 이상을 향한 마음을 표현

구성: ① 깃발의 역동적 모습(1~3행)

② 깃발의 순수한 열정과 애수(4~6행)

③ 인간 존재의 동경과 좌절의 아픔(7~9행)

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③ 두리몽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준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말아라’와 ‘마라’ 모두 표준어입니다. 2015년 표준어 개정에 따라 기본형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라), -아요’가 결합하는 경우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할 수도 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마, 마라 / 말아, 말아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됩니다.  
 ② [X] ‘여태껏, 입때껏, 이제껏’이 표준어이고, ‘여직껏’은 비표준어입니다. 이와 함께 ‘여지껏, 여직’ 역시 틀린 표기이므로 주의합니다.  
 ③ [O] ‘두리몽실하다’와 ‘두루몽술하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④ [O] 2016년에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주책맞다’와 ‘주책스럽다’가 추가되어 총 4가지 유형이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품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있다’는 동사, 형용사로 다 쓰입니다. ‘존재하다’의 의미로 쓰이면 형용사, ‘머물다’의 의미로 쓰이면 동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쉽습니다. 명령형, 청유형, 현재 종결형 어미(-ㄴ다/는다)가 되는 것은 동사이고(여기 있어라, 여기 있자, 여기 있는다, 30분만 있어라), 기본형만으로 평서문이 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 ① [O]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② [X]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③ [O]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④ [O]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 기특 플러스 동사 ‘있다’의 용법(세 가지 용법 외에는 모두 형용사임)

**1 【...에】**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예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예 •탄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2 【-게】**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예 •떠들지 말고 얹전하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모두 함께 있자.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예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엿빵 - 공붓벌레                      ② 마긋간 - 인삿말  
 ③ 공긋밥 - 백긋장                        ④ 도맷값 - 머릿털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사이시옷의 표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으므로 ‘봉엿빵’이 옳은 표기입니다. ‘공붓벌레(工夫벌레)’는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이며 [공부뻔레/공분뻔레]로 사이시옷이 나므로 사이시옷을 씁니다.  
 ② [X] ‘마구간(馬廐間)’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가 바른 표기입니다. ‘인삿말’이 아니라 ‘인사말’이라고 써야 어법에 맞습니다. ‘인사말’은 ‘인사’와 ‘말’ 사이에서 사잇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반대말’, ‘예사말’, ‘머리말’이 있습니다.  
 ③ [O] ‘공긋밥(空器밥)’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공기뻔/공긴뻔]으로 사잇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씁니다. ‘백지장(白紙張)’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가 바른 표기입니다.  
 ④ [O] ‘도맷값(都賣값)’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도매값/도뻔값]으로 사잇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씁니다.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으므로 ‘머릿털’이 옳은 표기입니다.

- 기특 플러스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의 표기’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고랫재	긋밥	나룻배	나뭇가지
넷가	댓가지	뒗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뺏길	뺏가리	부싷돌	선짓국
췌조각	아랫집	우렁이속	잇자국
챗터미	조깅살	찻집	챗마퀴
킷값	핏대	햇별	햇바늘
나잇값	먹잇감	잔칫집	장맛비
빨랫줄	날갯짓	날갯죽지	어갯죽지
뺏가죽	고깃국	순댓국	김칫국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멧나물	아랫니	뒗마당	아랫마을뒗머리
갯목	잇몸	넷물	뺏물
콧날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도리갯열	뒗웃	두랫일	뒗일	뒗입맛
베갯잇	웃잇	갯잎	나뭇잎	뺏잎
허드렛일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콧병	머릿방	뺏병	붓독	사갯밥
샷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샷잔
샷종	춧국	콧병	뺏줄	뺏세
뺏기	햇수	뺏가루	뺏배	기뺏값
근삿값	대뺏값	췌뺏값	췌솻값	전셋값
장및빛	우웻빛	제삿밥	등긏길	하긏길
귀갯길	기갯길	부엌국	만뺏국	소깃적
꼭짓점	긋병	시갯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갯날	제삿날	훗날	뺏마루	양칫물
푼말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가뺏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	-----	----

9. &lt;보기&gt;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와 앉아 있겠지요. ( ㉡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쩍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
| ②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
| ③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
| ④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제시문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이 소설은 여섯 살 난 어린아이인 ‘옥희’의 시점에서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합니다.

- ③ [O] ㉠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나’는 아저씨가 예배당에 오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보니 아저씨가 ‘나’의 예상대로 예배당에 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에는 ‘그랬다’와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더니’가 결합한 ‘그랬더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나’는 아저씨가 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아저씨가 어른이면서도 아이들처럼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런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나’는 아저씨를 알아보고 빙그레 웃어 보이고 나서 다시 손을 흔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하여’의 준말인 ‘그래’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나’가 손을 흔들자 아저씨는 그것을 보고 얼른 고개를 숙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니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그랬다: 형용사 ‘그렇다’에 어미 ‘-았/었-’이 결합한 형태는 ‘그랬다’입니다.

10. &lt;보기&gt;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꺾꺾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1980년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해야만 했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좌절감을 주제로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① [X] 화자는 애국가를 경청해야만 하고 애국심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O]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의 ㉠ ‘끼룩거리면서’는 바로 다음 행의 ‘자기들끼리 꺾꺾대면서’의 ‘꺾꺾대면서’와 이어지면서 획일화된 질서로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X] ㉠ ‘끼룩거리면서’는 비판과 냉소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뒤우치고 한탄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X] ㉠ ‘끼룩거리면서’는 비판과 냉소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11. &lt;보기&gt;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의미 변화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X] 고유어인 ‘통닭’이 외래어인 ‘치킨’으로 대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상 의미는 다릅니다.  
※ 통닭: 털을 뜯고 내장만 뺀 채 토막을 내지 아니하고 통째로 익힌 닭고기.  
치킨: 닭에 밀가루 파우더를 입히고 튀겨 만든 요리. 굽기도 한다.  
③ [X] ‘아점’은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아침 겸 점심’을 합쳐서 형태가 줄어든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에 해당합니다.  
④ [X]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휘가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록 플러스 단어의 의미 변화의 종류

의미의 축소 (의미의 특수화) : 단어의 의미 범위가 좁아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인: 남녀를 불문하고 성품과 인물이 좋은 사람 → 아름다운 여자</li> <li>짐승: 온갖 생물 → 네 발 동물</li> <li>도련남: 총각 전부 →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li> <li>얼굴: 몸 전체 → 안면(顔面)</li> <li>놈: 남자 모두를 이르는 말 → 남자의 비속어</li> </ul>
의미의 확대 (의미의 일반화) : 단어의 의미 범위가 넓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레: 종친 → 민족</li> <li>영감(令監): 당상관 → 남자 노인</li> <li>장인(匠人): 기술자 → 예술가 전체</li> <li>다리(脚): 짐승과 사람의 다리 → 무정물로 확장(사물의 다리, 책상다리, 지게다리, 교각 등)</li> </ul>
의미의 이동 :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누라: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 또는 임금이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 → 아내를 낮춰 부르는 말</li> <li>어리다: 어리석다 → 나이가 어리다</li> <li>어여쁘다: 불쌍하다, 가엾다/가엾다 → 아름답다</li> <li>사랑하다: 생각하다 →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li> </ul>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gt;</p> <p>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u>조음 위치</u>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u>기본자와 가획의 원리</u>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p>
--

- ① 목청, ‘ㅇ’과 ‘ㅎ’
- ② 윗잇몸, ‘ㄴ’과 ‘ㄷ’
- ③ 센입천장, ‘ㄱ’과 ‘ㅋ’
- ④ 어린입천장, ‘ㅅ’과 ‘ㅈ’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훈민정음 제자 원리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조음 위치가 동일한 기본자와 가획자를 찾아야 합니다. ‘조음 위치’는 자음이 만들어질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 ① [X] ‘ㅇ’은 기본자, ‘ㅎ’은 가획자에 해당하지만, ‘ㅇ’의 조음 위치는 어린입천장이며, ‘ㅎ’은 목청에 해당하므로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② [O] ‘ㄴ’은 기본자, ‘ㄷ’은 가획자에 해당하고, ‘ㄴ’과 ‘ㄷ’의 조음 위치는 윗잇몸으로 동일합니다.
- ③ [X] ‘ㄱ’은 기본자, ‘ㅋ’은 가획자에 해당하지만, ‘ㄱ’과 ‘ㅋ’의 조음 위치는 센입천장이 아니라 어린입천장에 해당합니다.
- ④ [X] ‘ㅅ’은 기본자, ‘ㅈ’은 가획자에 해당하지만, ‘ㅅ’의 조음 위치는 윗잇몸이며, ‘ㅈ’은 센입천장에 해당하므로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기록 플러스 자음의 분류

조음방법 \ 조음위치	두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어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ㄸ	ㅌ	
		된소리	ㅃ	ㅆ	
		거센소리	ㅈ	ㅊ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 ① 파열음(破裂音):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② 파찰음(破擦音):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 ③ 마찰음(摩擦音):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 ④ 비음(鼻音): 입 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
- ⑤ 유음(流音):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 ① 양순음(兩唇音):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 ② 치조음(齒槽音):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 ③ 경구개음(硬口蓋音):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 ④ 연구개음(軟口蓋音): 혀뿌리 부분이 어린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 ⑤ 후음(喉音):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 기록 플러스 훈민정음 조성의 제자 원리/장제의 원리

- 조성 17자(자음): 기본자 5자 ‘ㄱ, ㄴ, ㄷ, ㄹ, ㅇ’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였으며, 여기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 가획자 9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자 방식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 3자 ‘ㅇ, ㄹ, △’도 있었다.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어금닛소리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	ㅇ (옛이음)
설음(舌音)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혓소리	ㄴ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ㄷ, ㅌ	ㄹ
순음(唇音)		象口形(상구형)		
입술소리	ㅁ	입의 모양	ㅂ, ㅍ	
치음(齒音)		象齒形(상치형)		
잇소리	ㅅ	이의 모양	ㅈ, ㅊ	△ (반치음)
후음(喉音)		象喉形(상후형)		
목구멍소리	ㅇ	목구멍의 모양	ㅎ, ㅎ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② 자기가 먹을 만큰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품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오늘’은 명사와 부사로 쓰입니다. ‘오늘’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입니다. ‘오늘이’는 조사 ‘이’가 붙었으므로 명사이고, ‘오늘 할’은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용언 ‘하다’의 활용형인 ‘할’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입니다.  
 ② [O]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입니다. 관형어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고, 체언 뒤에 붙어 사용되면 조사입니다. ‘먹을 만큼’은 관형어 ‘먹을’ 뒤에 오므로 의존 명사이고, ‘철수만큼’은 명사 ‘철수’ 뒤에 붙어 사용되므로 조사입니다.  
 ③ [O] ‘비교적’은 관형사, 부사 및 명사로 쓰입니다.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 그리고 조사가 붙어 사용되면 조사입니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의 ‘비교적’은 용언 ‘편리하다’를 수식하므로 부사이고, ‘비교적인’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인’이 붙어 사용되므로 명사입니다. 참고로 관형사 용법의 예시에는 ‘비교적 고찰 / 비교적 연구’가 있습니다.  
 ④ [X]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입니다. 동사는 어미 ‘-는다’, ‘-다’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이와 같은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혀가 굳는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동사’이고, ‘그는 사람됨이 굳는다’와 같이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혀가 굳어’의 ‘굳다’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였으며, ‘사람됨이 굳고’의 ‘굳다’는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 기특 플러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동사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형 종결 어미: ‘-는다’(o) ‘-는다’(o)</li> <li>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는’(o)</li> <li>과거형 관형사형 어미: ‘-은’(o)</li> <li>명령형(‘-아라/어라’), 청유형(‘-자’) 그리고 진행형(‘-고 있다’)을 만들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형 종결 어미: ‘-다’ (o) ‘-는다’ (x)</li> <li>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은’, ‘-느’(o) ‘-는’(x)</li> <li>명령형, 청유형 그리고 진행형(‘-고 있다’)을 만들 수 없다.</li> </ul>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들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만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결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 소나기 되어 파부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① ㉠      ② ㉡      ③ ㉢      ④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어의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서정주의 <춘향 유문>입니다. <춘향전>을 제재로 하여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문(遺文)’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글을 의미하며, ‘도솔천(兜率天)’은 옥육천의 넷째 하늘을 의미하며, ‘도솔천의 하늘’은 극락세계를 상징합니다.

- ① [O]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의 ㉠ ‘나무’는 푸르른 생명감의 표상과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공간의 상징물입니다. 임으로 하여금 생생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③, ④ [X] ‘검은 물 → 구름 → 소나기’는 운회사상을 보여주며, 인과론적 사상에 의거한 춘향의 변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 ‘소나기’는 도련님에게 파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바짝 존 찌개를 다시 끓였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를 의미하는 ‘줄다’는 ‘ㄹ’ 규칙 용언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해설에 따라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ㄷ, ㄱ’ 및 ‘-오, -ㄷ’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어간 ‘줄-’이 관형 어미 ‘-느’와 결합하여 ‘ㄹ’이 줄어들므로 ‘존’으로 활용합니다.  
 ② [O] 「한글 맞춤법」 제18항 해설에 따라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어간에 ‘-네’가 결합하면 ‘노라네’와 ‘노랳네’로 활용합니다.  
 ③ [X] ‘곧바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해설에 따라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가’ 탈락하고 ‘ㄹ’이 덧붙는 경우, 바뀐 대로 적습니다. 어간 ‘곧바르-’에 어미 ‘-아야’가 결합하였으므로 ‘-가’가 탈락하고 ‘ㄹ’이 덧붙는 ‘곧바라야’가 적절한 표기입니다.  
 ④ [O] 「한글 맞춤법」 제18항 해설에 따라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저렇다’의 어간 ‘저렇-’이 모음 어미 ‘-으나’와 결합하면 ‘저러나’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어미 ‘-어’와 결합할 때 ‘그래, 이래, 저래’로 일관되게 활용합니다.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다)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 (라)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① (가)-(나)-(라)-(다)      ② (가)-(라)-(나)-(다)  
③ (라)-(가)-(나)-(다)      ④ (라)-(나)-(가)-(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④ [O] 선지는 (가) 또는 (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기 1>에서 구글이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해 '연구'한다고 했으므로 (가)와 (라) 중 '검색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라)가 먼저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라)에서 특정 검색어 '패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패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는 (나)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어서 (가)에서는 (나)의 '검색 빈도와 환자 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검색량을 통해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구글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라)-(나)-(가)-(다)입니다.

17.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 선출한다.

- ① ㉠ - 規律      ② ㉡ - 老衰  
③ ㉢ - 推戴      ④ ㉣ - 先出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를 의미하는 ‘規律(법 규, 법 율)’은 옳은 한자 표기입니다.
- ② [O]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을 의미하는 ‘老衰(늙을 노, 쇠할 쇠)’는 옳은 한자 표기입니다.
- ③ [O] ‘윗사람으로 떠받들.’을 의미하는 ‘推戴(옹길 추, 일 대)’는 옳은 한자 표기입니다.
- ④ [X]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을 의미하는 ‘選出(가릴 선, 날 출)’은 ‘先(먼저 선)’이 아니라 ‘選(가릴 선)’을 씁니다.

18.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뛰한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의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우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앞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가 많이 되었다.

-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지문은 주장하는 글이 아닌 설명하는 글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례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 ② [X] 우리 음악의 특징과 서양 음악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을 뿐,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거나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O] 지문은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인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양식척(量息尺)의 특성을 분석한 뒤 이와 달리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는 서양인들의 방법을 대조하여 대상의 우리 음악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한배: 국악에서, 곡조의 느리고 빠른 정도.  
양식척(量息尺): 매화점 장단에서, 장단의 길이를 재는 기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이 여섯 번 뛰는 동안에 한 번 숨 쉬는 것을 일식(一息)이라고 하여 장단을 잴다.  
박절(拍節): 일정한 박자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진행되는 것.
- ④ [X]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하거나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19. &lt;보기&gt;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전계될 내용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 ① [O] <보기>의 마지막 부분은 인쇄술의 발달로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되고 대중들에게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이 줄어들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X]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다고 하였으므로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교사의 권위가 공고해졌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 ③ [X]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들에게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 ④ [X]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들에게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권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 [문제 해설]

- ① [X] 芝蘭之交(지초 지, 난초 란, ~의 지, 사귄 교)는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② [X] 金蘭之契(쇠 금, 난초 란, ~의 지, 맺을 계)는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③ [X] 刎頸之交(목벨 문, 목 경, ~의 지, 사귄 교)는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蔣相如)와 엄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 ④ [O] 丹脣皓齒(붉은 단, 입술 순, 흰 호, 이 치)는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입니다.